

한국, K-AI 시티 실행전략 발표로 AI 기반 도시 전환·확산 본격화

해당국가	한국	기관(기업)	국토교통부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시·공간
-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-

□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9일 「K-AI 시티 실행전략」을 발표하고 AI 서비스·인프라 구축부터 시범도시 조성, 국내외 확산과 제도 개선까지 5대 핵심과제를 제시

-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K-AI 시티 조성을 목표로 사람 중심 미래도시 구현과 AI·로봇 실증, 도시모델의 국내외 확산을 기본방향으로 설정
 - AI 혁신서비스 발굴, AI 시티 인프라 구축,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·운영, 선도모델 확산, 법·제도 기반 마련을 5대 핵심과제로 구성
 - 2027년까지 관련 법·제도와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'30년 전·후 AI 특화 시범도시 성과를 창출한 후 우수모델을 국내외로 확산할 계획
- K-AI 시티의 실증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개편하고 「스마트도시법」 개정 등 AI 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
 - 인공지능도시·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제도화하고 AI 특화 시범도시의 지정·지원과 규제특례 등을 마련하여 AI 기반 도시서비스의 도입·확산을 지원
 - 도시 데이터 관리와 AI 위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기업과 함께 규제를 사전에 발굴·검증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기술 실증을 촉진

□ AI 기술과 지능형 도시인프라를 실제 도시공간에 구현하고 기존도시·신도시 특성을 반영한 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하여 국민 체감형 서비스의 실증·확산을 추진

- 민간의 AI 혁신서비스와 공공의 건축행정·도시계획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하고, 도시 발전단계에 맞춘 기술로드맵과 AI 기반 도시인프라 구축을 추진
 - AI 시티 발전단계를 기반 조성부터 자율도시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인프라·서비스를 제시하여 도시의 AI 전환 수준을 체계적으로 고도화
 - 도시지능센터와 데이터 파이프라인, 피지컬 AI·지능형 시설물을 연계한 AI 도시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권역별 도시 운영시설의 지능화를 지원
- 원주·천안·아산은 기존도시에서 민간 서비스를 검증하는 테스트베드형으로, 새만금·광주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AI를 적용하는 모델도시형으로 추진
 - 지방정부·기업·대학이 기술 실증부터 사업화·인재양성까지 연계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요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솔루션 마켓을 통해 기술 확산을 지원
 - 도시기반시설과 AI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형 수출모델을 마련하고 K-City Network 사업과 현지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국내 AI 도시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

※ 출처 : 국토교통부(2026.09.09), AI가 잇는 도시의 미래, 「K-AI 시티 실행전략」에 담다